

김영균(광양 매화랜드대표, 스마트소셜연구회 회장)



sns는 시공을 초월해서 살게 해주는 것 같다. 2011년 여름, 광양 대광고회 초. 중고생 53명과 함께 선교 봉사활동 차원에서 6박7일 일정으로 필리핀을 다녀왔다. 이역 만리 타국으로 떠나보낸 부모님들의 자식걱정을 덜어줄 방법이 없을까? 생각 끝에 “이거다. 아이들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카카오 그룹 채팅을 통해 사진과 동영상 보여드리자”결정된 것이다. 부모님들의 열광하는 분위기라니, 스마트 폰을 통신용으로만 사용하다가 이제 진정한 스마트 폰의 위력과 가치를 체험했다고나 할까?

거기다가 유스트립 실시간 동영상으로 한 시간여를 보여드리니 거의 광분 수준이었다. 필리핀에서 자식들이 봉사하는 현장을 집에서, 그것도 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니 지금껏 국내 수학여행만 보내놓고도 행여나 사고가 나지 않을까 돌아올 때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부모들에게 유스트립 동영상의 위력은 대단한 것이었다. ㅎㅎ. 참 좋은 세상이다!!

당시 소셜을 접목한 여행을 다시 회상하며 하나하나 스케치를 해 본다. 소셜과 함께한 나의 여행에 가지고간 장비는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LG유플러스LTE), 대용량충전기(아이워크8200). 무슨 개인 장비가 그렇게 많냐고 묻는다면 3년 전 나의 교통사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2009년 3월 24일 00시 30분, 비즈니스란 이름으로 술 한 잔 거나하게 들이킨 영

균이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운전대를 잡는다. 순천에서 광양을 오는 길, 평상시 같았으면 아무 일 없었을 것을 한잔의 끝은 무시무시한 악몽으로 접어든다. ‘고속도로 역주행’ 말로만 들었던 것을 몸소(?) 실천해 버린 것이다. 결과는 대 참사, 차량 대과, 중상... 사고시 휴지 조각이 된 내가 탄 차량사진을 보노라면 지금도 현기증이 날 정도다.

병원에서 대수술을 받고 겨우 목숨만 부지하여 살아난 영균이는 하늘이 돕지 않고는 살아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설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내게 다가온 괴물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아이 폰이다. 괴물이라 지칭하는 것은 이전에 봐오던 폰이 아니어서다.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소형 컴퓨터. 실시간으로 인터넷 조회는 물론 글을 남기고 전할 수 있고 오락도 하고 금융거래도 하고 교통예약도 하는 등 이전까지 컴맹수준으로 컴퓨터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온 나였기에 만져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탐이 나는 도구가 아이 폰이었다.

자나 깨나 24시간 수족처럼 소유하며 다니는 나를 두고 아내는 많은 불만이 있었고 실제로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기까지 했다.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야 했던 시절에 신선하고 멋진 소통의 도구가 되 준 아이폰, 이를 통해 접하게 된 트위터! 페이스북! 그리고 구글! 또 다른 세계에 접어든

거 같은 느낌에 밤을 새워 공부에 공부를 탐닉하다보니 기기들도 늘어났다. 그리고 이 기기들을 활용해 너무도 쉽게 멋진 소셜 여행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소셜여행을 위한 준비

출국 전 데이터 무제한 사용에 가입한다.(10.000원/일)



여행도중 imovie 앱을 가지고 사진과 동영상에 효과와 자막을 넣어가면서 아주 쉽게 동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고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비롯한 교회사이트에 올려놓았다. 학부모들의 반응이 뜨거웠음은 물론이다. 사진은 '톤도로 가는 길' 2편이 올려진 유튜브 사이트.

데이터 무제한으로 안 해온 동료들에게는 핫스팟으로 연결을 해준다. 아이폰은 3개 이상 지원이 안 되는 것 같고 안드로이드는 8개까지 지원이 된다 하는데 확인한 바는 없다. 모든 기록은 아이폰과 아이패드로 처리한다. 여행 전 준비물 기록해 놓은 곳도 수첩이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 클라우드를 이용한다. 컴퓨터, 패드, 폰. 어느 한 곳에서 기록하면 일시에 나머지 기기에 자동 동기화되는 클라우드를 이용한다.

다음 클라우드, 드랍박스, 에버노트, 그리고 사용한 소셜 툴은 트위터, 페이스북, 유스트림, 블로그, 포스퀘어, 유튜브, 구글 등이다.

특히 카카오톡은 아이들을 외국으로 보내는 부모를 위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접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한 최상의 툴이다. 먼저 그룹을 형성해서 공항 출발 전에 접촉

을 시도 한다

처음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다가 사랑스런 자식들 사진과 동영상이 보이면 열광하기 시작하고 카톡유저가 아닌 분들도 카톡 단체에 가입시켜 달라고 문자 메시지가 쇄도한다..^^

Polymagic사진은 아이폰으로 찍고 polymagic 앱으로 묶어서 올린다. 사진을 한 장씩 올리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 몇

장씩 묶어서 올려야 되는데 보통 네모박스 형태로 사진을 모아주는 앱이 대부분인데 이걸 독특한 프레임으로 프레임 조절이 가능하기에 사용이 무척 쉽다.

포스퀘어 체크인으로 나의 위치를 표기하고 간단한 느낌과 팁을 포스팅한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연동은 필요에 따라서 하지만 최대한 자제하며 한다. 필리핀은 포스퀘어 사용이 활성화 되어 있어서인지 100m이내에 많은 장소가 체크인 되어있었다. 식사를 하러 갈 때나, 원하는 것을 찾을때는 리뷰를 확인하고 좋은 장소(리뷰가 많은 곳)를 선택한다.

현장의 유스트림으로 실시간 중계에 들어간다.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처참한 필리핀 현장을 가감 없이 보여주니 놀라울 따름이다..

생중계 주소 <http://ustre.am/pcoi>

녹화된 주소
<http://www.ustream.tv/recorded/19750374>

이번 여행에서 멋진 앱의 효능을 새삼 깨닫는다. imovie 앱은 폰으로 찍은 사진과 동영상에 효과와 자막을 넣어가면서 아주 쉽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앱이다. 컴퓨터에서 자주 사용하던 윈도우 무비메이커와 거의 흡사한 기능을 가진 강력 툴로써 한 시간이면 5분짜리 동영상제작이 가능한 막강 툴이다.

톤도로 가는길 -첫째 날

http://www.youtube.com/watch?v=Pw_MaNWojVE&feature=youtube_gdata_player

톤도로가는길-둘째 날

http://www.youtube.com/watch?v=XpIAXzEZSw4&feature=youtube_gdata_player

톤도로 가는길 - 셋째 날

http://www.youtube.com/watch?v=hSyAYmPWggE&feature=youtube_gdata_player

톤도로 가는길 - 넷째 날

<http://youtu.be/25-wND7zQqE>

아이무비에 만든 동영상은 유튜브에 올린다. 올린 후 링크를 따서 각 툴에 포스팅한다. 네이버 블로그에 포스팅한다.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폰에 기록한다. 때론 아이패드. 때론 안드로이드 폰으로 배터리 용량과 기기의 용도에 따라서 수시로 올린다. 지금 이글도 마닐라 공항에 앉아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아이폰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ㅎㅎ. 최근에 업그레이드 된 네이버 블로그 폰용 어플이 아주 편하다.

페이스북에 포스팅한다. 프로필과 그룹. 그리고 페이지에 용도와 성격에 맞게 골라서 포스팅한다.

트위터에 포스팅 연결한다. 해쉬태그를 활용하여 검색에 노출되게 하고 되도록이면 URL과 사진을 같이 첨부한다.

대용량배터리- iwork 8000

스마트폰의 최대 약점인 배터리의 급속한 소모를 커버해주는 보조 배터리는 필수!

한번의 충전으로 폰 4회, 패드 1회, 충전 가능한 iwork8000이 너무 고맙다. 이제 여행도 스마트해지는 시대다. 다음 여행이 주어진다면 좀 더 알차고 프로소셜러스러운 여행은 어떻게 해야할까? 궁금하고 기다려진다. ^^